착하면 모든 일 순조롭게 돌아가

☞ 19면에서 계속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닥치고 보니 남이 필요했고 더불어 사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야심경을 외울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이 불법이 만물만생을 살리며 모든 진리가 이 경 속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성은 본래 다 갖추어져 있으며, 본래 청정하며, 여여하며, 능히 들이고 내리며, 자유자재함이며, 그 법문이 저희 부산 지원 신 법당, 구 법당 벽면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 법문을 보면서 '그래! 맞아맞아' 하면서 속으로 감격을 한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제 앞에 태산같이 밀어닥칠 때에도 스님 법문 테이프를 늘 생활화해서 듣고 있으니 태산이 무너져도 여여하다 했고 엎어진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며 자기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그 법문 그 법문이 떠오르면서 믿고 지내왔습니다.

조상이 바로 과거의 나

그러는 중에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고, 정말 믿고 말겨야 되겠다는 생각과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최근의 가까운 예로는 작년 정월 초불재를 마치고 기장에 있는 저의 사무실에 도착하니 밤 10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저의 아들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늦어도 좋으니 전화를 해 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그 쪽에서는 저희 건물의 사정과 그 주위의 가격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흥정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를 주겠느냐고 하니 4억 천만원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건물이 경매가 진행이 되어 1차 유찰이 되어 2억9천에 내려가 있었으니까요. 워낙 목이 좋고 위치가 좋은지라 탐을 내는 사람은 많았지만 등기부 등본상 14군데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전세권 설정이며 너무나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순간 스님의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고정되지 않고 한 찰나에 돌아간다는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주인공 너는 다 알고 있잖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서로 이익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구요.

삭제를 하면서 잔금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제가 다음날 정확한 시간에 와서 계약금 30%를 주면서 등기부 등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빨리 계약금을 받고 난 다음 저희 건물이 너무 골치가 아프고 등기부 등본상 이렇게 어지러운데 어떻게 이걸 감히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 가게가 필요하고 또 건물주가 뜨네기가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게보다 더 좋은 점포도 아직 남아 있고 사기를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십 사람이 다녀가고 장소는 탐을 내었지만 등기부 등본상 그렇게 어지럽고 또 저희 이층, 삼층, 사층 모두가 힘들게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온 동네 소문에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살 사람이 나서는 건, 주인공의 나툼이라고 지금도 믿거든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주인공은 너무나 대단하고, 주인공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전세로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은행이 퇴출이 되고 IMF가 오고 등등 많은 어려움이 닥치면서 부동산이 곤두박질을 쳤고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점포 전세가 떨어지고 경기가 최악이 되면서 저는 많은 약속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옛날의 제 성격으로는 도저히 견디어 낼 수가 없었는데도 주인공을 믿고…,

▲스님: 이제 보살님 그만 말씀하셔도 다 알겠습니다.

▲질문자 2: 예 그런데 이 경매 받은 부분에 경락금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재경매가 또 다시 들어갔거든요. 다시 들어갔는데 그 재경매를 받은 분하고 저하고 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경매가 할 당시에도 제가 주인공한테 믿고 맡기면서 주인공의 나툼이니까 나는 속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스님: 잘 알아서 하시면 잘 될거예요. 걱정마시고요.

▲질문자 2: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하며 지원장 스님께서도 저희에게 많은 힘을 주셨고 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늘 감사한 마음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저 주인공에 관하고 믿고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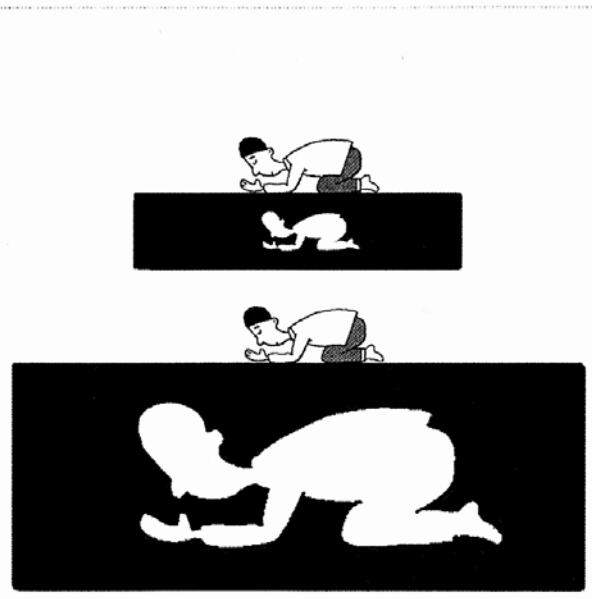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저승문 열줄 알아야 산 사람 제도
경계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닥쳐

허황되게 살지 말도록

▲스님: 예, 그런데 이 말 끝에 또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자식이래도 그렇고, 형제지간이래도 그렇고, 부처님이 부처님 제자들을 가지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또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그렇고, 사는데 너무 허황되게 사는 거를 그렇게 모를 때 보살님처럼 그렇게 갖다 처박습니다. 처박아요 그냥 갖다가. 뭐 두 말 할 거 없이 처박아놔요. 그럼 거기서 나오려고 무척애 쓰다 보니까 아! 우리가 과거에 너무 허황되게 살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제 삼자의 문제들도 알게 되고 내가 돈이 없으니깐 제 삼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는 도리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올라올 수 있고 살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깐 누구를 막론해 놓고 그렇게 처박아요. 하하하. 그러니까 한생각을 잘못해서 처박히지 마시고, 미워서 처박는 게 아니에요. 사람되게끔 해서 꺼내려고 그러는 거죠. 하하하.

▲질문자 3: 병고를 겪으면서 일어났던 마음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8년 10월 악성 림프종이라는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고 두려웠지만 아! 주인공이 있지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을 조금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느냐 아니면 오직 주인공만 믿고 지켜보느냐 갈등하다가 정신계, 물질계 50%씩 병행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상을 느껴 검사를 해 보니 진단 초기의 수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다시 입원하여 좀 더 높은 강도의 항암치료를 하였지만 전과는 달리 조금의 변함도 없이 점점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시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물론 주인공에 믿고 맡긴다는 생각은 항상 하지만 마음 그리 편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스님을 뵙고 병원에 있을 병이 아니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길로 퇴원하여 오직 주인공만이 나의 근원이며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상인의 수치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가끔 숨이 차고 답답하여 수혈도 합니다. 요즘도 숨이 차고 조금 힘이 듭니다. 이럴 때도 갈등을 느낍니다. 피를 생성시키게 하는 것도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맡기느냐, 아니면 수혈하게끔 생각나게 하는 것도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거다 하고 말입니다.

1배가 3천배 되기도

▲스님: 그럼 천도재는 지내셨습니까?

▲질문자 3: 예. 천도재 올해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상과 집착이 많은 저에게 병고는 나를 근본으로 이끄는 주인공의 손짓임을 알고 또 저에게 주인공은 견딜 만큼만 병고를 주시므로 나를 가르치는구나 믿습니다. 앞으로 경계에 속지 않고 주인공의 품에 기거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아무한테나 경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요소요소하고 전자에서부터 그렇게 해 왔고 부모에게도 착하지 못한 그런 자손이라야만이 경계가 옵니다. 그러니깐 경계가 올거라는 생각은 놓으시고 그저 열심히 하세요. 노래에 아무나 사랑하느냐고 그런 말이 있죠? (대중 웃음) 하하하. 참 아무나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아무나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경계도 받는 거지 아무나 경계를 받는 건 아닙니다.

▲질문자 4: 저는 오늘 질문이라기보다도 모든 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청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보예찬이라는 제목의 노래 말 속에 삼보님의 은혜를 담고 스승님의 은혜를 한번 담아 보려고 공양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크신 자비 원력과 가르침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전 가족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모든 인연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법의 요지는 108참회 참회 수행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청법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 속에는 전통적으로 불보살님 전에 1배, 3배, 108배 절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온 숱한 허물을 참회하고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청법자도 거의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108참회배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홉 가지 종목쯤 되는 금강체조중에 한 종목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삼도허물을 주인공 자리에 되놓고 절을 하고 중선봉행을 다짐하며 108배를 아침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불보살님께 간구하는 기복적인 신행이 아니고 참회와 선을 다짐하는 108배는 아집과 아상과 아만의 나를 없애는 마음공부라 믿기 때문입니다. 108참회배 수행에 대한 바른 가르침 다시 한번 청하옵니다.

▲스님: 108배다 3천배다 하고 절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뜻을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은 108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을 해도 108배가 되니까요. 세 번을 하면은 삼세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108배를 꼭 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 앞에는 꼭 해야죠. 그거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고 또 그렇게 뉘우치고 그러는 것이 끝나면은, 급하면은 한번 하시고, 한번하고도 3천배가 될 수 있으니깐 그대로 하시되, 3천배를 했다 108배를 했다 하는 숫자에 걸려서 습이 되면은 그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습이 되면요, 잘 알면서도 습이 되면 그걸 떼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짧게 그냥 한 발만 떼어 놓으면 될 걸 길게 몇 발자죽 떼어야 된단 얘기죠. 그런 문제를 가진 분들을 더러 봤습니다.

▲질문자 4: 예. 저희는 아침 금강체조의 일환으로 시작한 게 합이 없는 마음으로 합니다. 참회도 참회지만, 참회해야 될 허물도 많지만은 그보다 불보살님의 원력을 받들어서 보살도를 성취하겠다는 한 서원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님: 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합이 없이 운동으로 하세요.

▲질문자 4: 예. 합이 없이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대중 웃음) 가르침 반야줄을 꼭 붙잡고 세세생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예. 우리는 다 벗어나서 반야줄도 없이 자유자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열심히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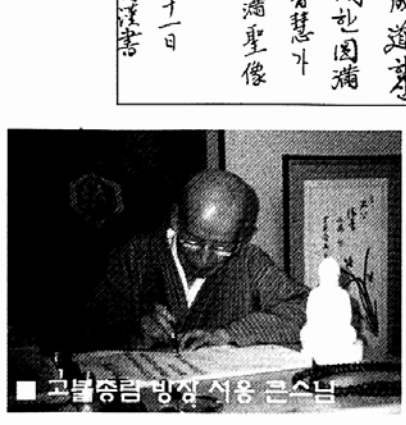
바로잡습니다 지난호(제312호) '미움과 부딪침이 많습니다' 질문의 답가운데 다섯번째 문장 첫머리 '문단을 바꿔 주세요'는 법문내용과 관련이 없기에 바로 잡습니다.

※위 법문은 지난 3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 주전서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